

강진군 소규모 전통주 제조 시설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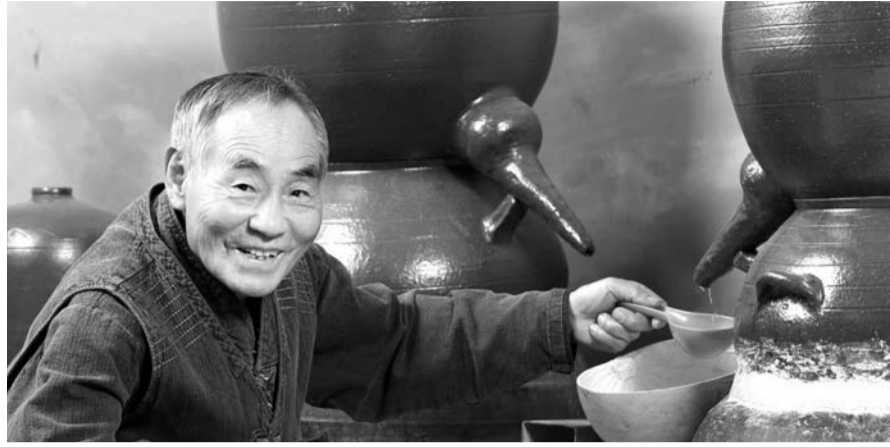
20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대학 발효식품 교육도 전통주 산업·특산물화 박차

강진군이 가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빚어온 우리 술의 합법화와 기술 보존을 위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취득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세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초기에 소득이 없는 점을 감안, 당해 연도만 자가품질검사비와 수질검사비에 대해서도 보조금(60%)을 준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세무서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보조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제61호)인 김건식 병영소주 대표가 보리쌀로 빚는 병영소주의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군은 전통주 산업화 첫 단계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을 통한 기능 보유자를 양성하고 다음 단계로 시설기반과 품질 경쟁력을 높여 지역 특산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쌀로 빚는 전통 술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집마다 술을 빚어 마시던 우리 조상들의 귀중한 술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군이 주관하는 자치대학에 발효과정을 개설해 가양주, 식혜, 식초

등 발효식품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과거에는 대부분 집에서 전통주를 제조했는데 점점 그 기술이 사라져가고 있어 아쉽다”면서 “전통주 기술 보존과 함께 지역경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술의 대명사로 불리는 ‘병영소주’가 최근 열린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병영소주는 조선시대 전라병영 장군들이 즐겨마시던 술을 김건식 대한민국 식품명인(제61호)이 재탄생시킨 증류식 소주이다. 쌀이 귀하던 시절 보리로 빚었던 옛날 방식 그대로 보리쌀과 손수 빚는 누룩으로 밀술을 만들어 3주 이상 숙성한 뒤 여과와 증류를 통해 빚은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목 넘김이 부드럽고 향이 은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영암서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오늘부터 이틀간 실내체육관

“제14회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이 4일부터 이틀간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영암군을 비롯한 22개 시·군 선수단과 영·호남 지역교류 일환으로 경북 지역 어르신 생활체육 선수단 70명 등 2100여명이 참가한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탁구 등 8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전을 펼친다.

매년 전남 시·군에서 순회 개최되는 어르신체전은 도내 60세 이상 도민이 참가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 ‘스포츠타 7330 실천으로 영원한 젊음!’이라는 목표 아래 도내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장흥 천관산 동백숲 탐방로 대대적 정비

영암국유림관리소가 장흥군 천관산 동백숲 탐방로(사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천관산 동백숲의 생태계 보전 강화와 쾌적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다.

1억원을 들여 목재 데크 및 야자 매트, 돌계단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이용해 산림생물다양성 기능을 유지·증진·보전할 계획이다.

천관산 동백숲은 과거 마을 주민들이 숯가마터를 만들어 숯과 엮, 기름 등을 생산해 생계유지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인정돼 2016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고시됐다.

박종오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정비사업은 정부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고 천관산 동백숲 식생 체계적인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하얼빈서 일직선’...정남진 장흥 상징 새 일러스트 개발

北 중강진서 하얼빈까지 연결 홍보물·쇼핑백·책자 등에 활용

장흥군이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하얼빈과 ‘정남진(正南津) 장흥’을 연결하는 일러스트(사진)를 개발했다.

“정남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일직선으로 정남 쪽에 있는 장흥을 일컫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일러스트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진 장흥과 일직선으로 최북단에 있는 북한의 중강진이 표기돼 있다.

이번에 선보인 일러스트는 장흥과 광화문, 중강진에 이어 하얼빈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했다.

하얼빈역은 동경 126도 58분 35초로 장흥에서 일직선 상에 있다.

장흥은 하얼빈에서 의거를 일으킨 안중근 의사와도 인연이 깊다.

장흥에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신 사당 해동사(海東祠)가 있다.

해동사는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못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장흥 유림인 안홍천 용이 1955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해 세운 사당이다.

장흥군은 새 일러스트를 각종 홍보물과 쇼핑백, 책자, 소셜 미디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2456농가 5000ha 농지에 새끼우렁이 58t 공급

일손 줄이고 친환경 쌀 생산

강진군이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벼농사 제조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한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을 들여 2456농가 5000ha에 새끼우렁이 58t을 공급한다.

우렁이 농법은 부드러운 풀을 먹는 새끼우렁이의 특성을 이용해 제초제 대신이 우렁이로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이다.

파·물달개비 등 일반 잡초는 물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잡초까지 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 씨레질 직후에 10a당 새끼우렁이 1.2kg(약 1200마리)을 논에 골고루 뿌려 주변 자연 순환, 생태계 보전, 제초비용 및 노동력 절감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해 새끼우렁이 살포 면적은 강진 전체 벼농사 면적의 57%가량을 차지한다.

신전면 논정마을 한 농민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제초인데 새끼우렁이를 투입함으로써 제초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했다”고 반겼다.

운영팀 강진군 친환경농업팀장은 “새끼우렁이농법은 논을 평탄하게 골라 논바닥이 물 밖으로 노출되거나 어린 모가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아야 탁월한 제초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새끼우렁이 살포 면적은 강진 전체 벼농사 면적의 57%가량을 차지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영암군 드림스타트사업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기관표창 받아

영암군이 2019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시상식은 4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보고 대회 때 열린다.

올해 평가는 보건복지부 직원과 현장 점검위원 등으로 구성된 드림스타트 점검단이 1월부터 3월까지 대도시 기초단체 16개 기관과 농산어촌 기초단체 82개 기관 등 총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서 영암군은 영암읍 소재지 외 산후읍 분사무소 설치와 무기계약직 전

환 등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과 대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이용자 만족도, 자원연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 2011년 상호읍을 시작으로 2014년 영암군 전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희망, 성장, 미래, 꿈을 위해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아동과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인근, 투자가치높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옆.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장** ▶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매매가,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 공장** ▶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 근린주택** ▶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 임야** ▶ 신안군 압해읍 북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